

# 독일 통일과 재정의 역할

황의서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I. 서론

역사철학자 헤겔은 역사를 형성하는 요소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G. W. F. Hegel, 1928: Vorlesung Ue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 헤겔, 김종호 역, 1982: 역사철학 강의)

첫째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는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과관계이다. 셋째는 역사적 현상의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세계이다. 독일통일을 이룬 역사적 요인들 역시 헤겔의 주장에 기초하여 볼 때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개혁과 개방의 움직임이 소련과 동유럽에 일어나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영성이 표면화되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가치관들이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신세계의 변화는 현상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동독 정부의 붕괴를 가져왔다. 둘째는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를 알고, 이를 이끄는 사람들이 준비된 것이다. 소련은 고르바초프를 통하여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독일의 경우 콜 수상을 통하여 가로 막힌 장벽을 헐도록 했다. 셋째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이다. 특히 국가 재정의 역할이다. 소련과 동독은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서방세계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했다. 서독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 동독은 돈 때문에 서독에 안기는 선택을 했고, 소련은 동독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물리적 환경 변화가 소련과 동독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고, 흡수통일의 길을 열어주게 준다. 만약 소련과 동독의 경제상황이 좋았고, 국가 재정의 위기가 없었다면 독일의 흡수 통일은 쉽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요인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한국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국제정세

### 1. 소련의 상황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닌 스탈린주의에 기초한 군사적-봉건적 독재체제를 유지했고, 주민들은 표면적 삶과 숨겨진 본질이 서로 다른 이중적 행위에 익숙했다. 경제 분야에서 사람들은 일을 못해도 급여, 주택, 교육, 농지,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권리들을 보장받았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었다.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경제적 삶은 사람들에게 비도덕적 삶을 허용했다. 도덕적 타락은 비효율적 행위를 용납했고, 자원낭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비효율적이고 부도덕한 소련사회는 곳곳에서 병들어 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괴리된 삶을 살았다.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삶을 허용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생명력을 스스로 상실해갔다. 생기를 상실한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사회는 역동성이 없고, 변화와 발전의 한계를 드러냈다.

무기력한 사회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고르바초프는 생각했다.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로 취임한 그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 상태를 목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레닌의 정치철학 “정치의 정도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Valentin Falin, Konflikte im Kreml, Der Untergang der Sowjetunion, Berlin 2015: 292)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책임 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감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르바초프는 보았다.

그는 1986년 제 27차 공산당회에서 경제와 정치의 근본적 이념 변화를 가져올 개혁(Perestroika)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개혁의 주요 대상은 경직된 사고방식이다. 의식혁명을 통하여 관습에 따른 사고와 행동이 아닌 창의적 노력과 역동적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 진리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무쌍한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되는 상황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자아를 발견하고, 창조적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고르바초프는 보았다.<sup>1)</sup> 자신의 존재감과 생기를 회복할 때에, 사회도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개혁(Perestroika)의 실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3대 주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실현, 정보의 개방,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소련은 당시 430만 명의 군인과 약 4천만 개의 불필요한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배급제도로 인하여 자원낭비가 심했고, 가격은 왜곡되고 있었다. 공산주의로 인한 나태함과 무능력은 경제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성실한 기업이 정신이 발굴되려면 개인 소유제도와 시장경제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그는 보았다. 시장경제는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도자들의 정보독점과 위법행위들은 사회를 무질서하고,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자유와 경쟁을 요구하는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련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실현하려고 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그는 믿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 정치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두 개의 근본적 원인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첫째, 그는 경제보다 철학과 사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 경제 운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 그의 주장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실천의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그는 실질적 제도적 변화와 정책수립에서는 약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가 주장한 의식 개혁은 현장에서 찾기 어려웠다. 그의 재임기간동안 경제발전의 구체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상황은 악화된다. 그의 개혁정신을 실천적으로 구체화 시킨 사람은 그의 후계자 옐친이다.

둘째, 그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정치적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과감한 경제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업적 없이 장기간 통치할

---

1)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고르바초프는 활용하지 않았지만, 인간성의 회복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는 개방과 개혁의 목표를 진실을 찾는 데 있고, 인간에게 진실이란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성의 회복이란 결국 인간만이 고유하게 소유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다. (Valentin Falin: 292-299)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책임은 없고 자유만 누리게 된 국영기업들은 부패의 온상이 되어갔다. 중앙감 독체제는 붕괴되고, 기업 관리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재산은 점 점 이들의 사유재산으로 변했고, 소련 경제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가 되었다. (안테쉬 오슬룬드, 러시아의 자본주의 혁명(Russia's Capitalist revolution, 2007))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은 세계역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소련 자체로 볼 때에는 잃은 것이 많았다. 소련연방은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은 독립해 나갔다. 동독도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서독에 흡수된다. 소련이 보유했던 경제적, 군사적 강국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치는 자국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동유럽에 자유의 정신을 정착시키고,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199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2. 독일통일에 대한 소련의 입장 변화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에 대하여는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통일을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유럽에서 군사적 힘의 균형이다. 냉전시대의 유물로 유럽은 나토(NATO)와 바르샤바 파크(Warschauer Pakts)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서독은 나토의 회원이고, 동독은 바르샤바 파크의 일원이었다. 동독과 서독의 국경은 곧 두 집단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접경이다. 동서독 간의 분리는 양대 진영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반영했고,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독일통일은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국가연합 형태로는 가능하지만, 흡수통일은 유럽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는 보았다.

둘째, 소련을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독일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되면, 인구는 8천만 명으로 증가하고, 경제력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세계 1차 대전 이전의 강대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독일통일은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길이고, 이는 모든 유럽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두려운 상상이다.

고르바초프는 콜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독일통일의 장벽들을 인정하고, 현실에 기초한 정치적 판단을 주문했다. 특히 독일에 연합군과 러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러시아 군대가 동독에 약 40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럽의 정치인들은 독일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고르바초프는 콜에게 편지를 써서, 통일은 현실적이고 실제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곧 협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이고, 두개의 독일을 인정하는 국가연합(Konfoederation)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콜이 구상하는 흡수통일에 대하여 유럽이나 소련은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서독 수상 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려운 실타래기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러시아 군대 40만 명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 명의 미군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앞이 막혀 있는 현실의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찾았다. 그는 독일통일을 정당화할 분명한 목표의식과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독일은 한 민족공동체로 한 개의 국가를 이루어야 하고, 독일통일에 대한 결정권은 독일국민 스스로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독일통일을 유럽연합의 발전적 과정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목표가 한 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서독과 동독도 공동체를 형성해서 유럽연합의 추세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통일과 유럽연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아데나워의 주장을 되새기는 것이었다. 콜은 민족의 자주결정권과 유럽공동체를 원칙으로 삼고, 독일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콜이 언급한 두 가지 원칙은 어느 정치인도 거부하기 힘든 원칙이고, 흡수통일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콜의 통일구상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지만, 끝까지 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갔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에게 동독에 주둔하는 군대를 활용하여 통일을 막을 것을 주문하지만, 콜은 협상을 통하여 소련군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는 독일통일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우선 미국을 생각했고, 미국의 신뢰를 쌓기 위하여 일찍부터 노력해왔다. 1982년 나토가 중거리 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려고 했을 때에 서독의 학생들과 진보세력들은 미사일 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거리 행진을 일삼았다. 1년 반 이상 서독은 심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핵반대 운동의 주도 세력들은 녹색당을 만들고, 녹색당은 나토(NATO) 탈퇴와 독일군대의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수상이었던 콜은 군사문제에 관한한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은 결코 없다고 강조하면서, 핵미사일 배치를 강행했다. 이러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신뢰는 소련과의 통일협상 과정에서 콜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콜 수상은 영국의 대처 수상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통일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었다.

소련은 독일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베르린 장벽 붕괴 이후에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소련의 비밀경찰 KGB은 동독의 공산당(SED)시대가 막을 내린 것을 알았다. 동독수상 모드로우의 정치력 역시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1990년 1월 26일 고르바초프는 KGB, 수상, 외무장관 등이 합석한 자리에서 동독에는 소련이 의지할 만한 세력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동독수상 모드로우도 초기에는 친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은 더 이상 동독을 지배할 수 없고, 서독을 통하여 지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결국 콜이 추구하는 통일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고르바초프는 현실에 기초한 독일정책으로 4개 연합국과 동서독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제안한다. 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고, 소련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만들어 내자는 속셈이었다. 독일통일 문제를 빈의 군축회담과 연계시키자는 주장을 했다.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철수 문제를 미군 철수와 맞물려 생각하자라는 것이다. 서독과 동독을 포함한 6자 회담을 개최하면 그 구성원의 비중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지지하는 세력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 프랑스, 소련, 동독은 흡수통일의 반대 세력이고, 미국과 서독만이 흡수통일을 찬성했다. 콜은 6자 회담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통일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했다. (Helmut Kohl, Meine Erinnerungen; Droemer, Muenchen 2014: 211) 고르바초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끌어들이며 독일통일 문제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려했고, 그의 최종 목표는 독일의 중립화와 무장해제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제안에 대하여 콜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갔다. 우선 콜은 미국 대통령 부시와의 전화통화를 자주하면서, 독일은 중립국의 대가를 치루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콜과 부시는 독일이 통일 후에도 나토일원으로 존재하고, 중립국의 위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콜은 독일 운명은 독일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결권에 대해서도 부시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미국은 소련이 승전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소련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개방정책에 기초하여 독립을 추진하면서, 소련연방국가는 붕괴 위협에 처했다. 특히 발트지역 국가들이 1990년 3월 독립을 선언하자, 고르바초프는 4월에 발칸국가들에 대하여 경제봉쇄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 유럽연합은 소련에게 경제봉쇄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도 발칸국가들의 편을 들면서, 소련이 경제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소련 간의 무역 체결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긴장이 독일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4월 19일 소련정부는 서독수상에게 독일통일에 대한 경고 편지를 보냈다. 콜은 편지를 받고서 통일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소련의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이러한 상황을 콜은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4월 23일 독일주재 소련 대사를 불러서, 경제적 협력관계에 대한 언질을 주고, 동독이 소련에게 이행하지 못한 경제지원을 대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서독이 소련의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낚시를 위한 미끼를 던진 것이다.

미끼의 냄새를 맡은 고르바초프는 콜을 모스크바로 초청한다. 이때부터 독일의 통일문제와 소련의 경제문제는 한 배를 타게 된다. 통일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되었다. 1990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콜은 고르바초프의 초청을 받고, 소련을 방문한다. 그동안 6자 회담에서 소련은 힘든 요구를 하면서, 통일시계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소련군 철수와 연합군 철수를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려 했고, 통일된 독일은 나토와 바르샤바 파크의 구성원으로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잔류를 주장하는 콜과 고르바초프의 주장은 서로 상충하고 있었다.

서로의 입장이 분명하게 다른 콜과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회동에서 독일과 소련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자는데 근본적 합의를 한다. 콜은 통일된 독일이 자신의 주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는가를 물었고, 고르바초프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었다. (Helmut Kohl, Meine Erinnerungen: Droemer, Muenchen 2014: 24) 이로 인하여 독일은 과도기간 없이 자신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증을 처음으로 얻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일된 독일이 나토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얻으려고 했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고르바초프는 주지 않았다. 법적으로 통일 독일은 나토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동독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구성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고르바초프는 밝혔다. 그러나 콜은 독일의 주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두 사람은 점진적으로 소련군의 철수에 대한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련은 소련군 철수라는 카드를 쥐고서 현실적으로 통일을 방해할 수 있었다. 현실에 기초한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콜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모스크바의 협상은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카우카스 별장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콜은 독일의 자주권이 보장되지 않고, 나토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별장에 갈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고르바초프는 그래도 가자고 말했다. 이때에 콜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별장에서 단 둘이 만나서 콜은 독일이 나토 회원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고르바초프는 침묵했다. 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민족의 자주결정권을 독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토 회원국 문제는 통일된 이후에 독일 국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고르바초프의 침묵은 독일이 통일된 후에 나토 회원으로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르바초프는 소련군이 철수한 동독에 나토군이 주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콜은 고르바초프의 주장이 독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독에도 국민이 원하면 나토군의 명령을 받는 독일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결국 통일독일이 가지는 자주권 속에는 나토 회원국의 선택권도 포함된다는 보장을 콜은 고르바초프로부터 받는다.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 잔류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은 것이다. 동독에서의 소련군의 철수도 3-4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는다. 콜은 철수 비용과 귀국하는 소련군의 주택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통일이후 독일의 군 규모는 37만 명으로 합의한다. 카우카스 별장에서 3시간에 걸친 회담은 흡수통일을 향한 독일 배의 출항을 허락했다. 소련이 독일과 통일 협상을 하면서 소련이 4대 강국을 대변하는 꼴이 되었다.

당시 콜과 고르바초프간의 합의한 주요 내용은 8개 조항이다.

- ① 통일독일의 범위는 서독, 동독과 베를린이다.
- ② 통일이 되면 4대 강국의 지위는 소멸되고, 독일은 완전한 자주권을 획득한다.
- ③ 통일 독일은 국제적 연합에서도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나토와 바르샤바 파크에 가입하는 일은 독일의 자주적 결정이다.)
- ④ 독일과 소련은 쌍방 협약을 통하여 소련군이 3-4년 안에 철수하는 것을 합의한다.
- ⑤ 소련군이 동독에 주둔하는 동안에는 동독은 나토 영역에서 제외된다.
- ⑥ 현재 서독의 국경수비대는 통일 이후 동독에 주둔할 수 있다.
- ⑦ 독일은 통일 이후 군 규모를 37만 명으로 축소한다.
- ⑧ 통일독일은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확산 방지 조약을 준수한다.

사람들은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의 장막 뒤에서 동독을 여름세일 가격에 처분했다고 말했다. 동맹국 동독은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 결단을 내린 고르바초프를 원망했고, 서독 사람들은 흥분했다. 서독의 언론들은 콜이 아테나워와 브란트를 능가했다고 보도했다.

합의 후에 소련은 갑자기 군 철수가 3-4년이 아니라 5-7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련군 철수에 대한 독일의 재정부담도 불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약 80억 마르크를 지원할 계획이었고, 소련은 180억 마르크를 요구하였다. 고르바초프는 9월 7일 전화통화에서 주택문제 해결에만 110억 마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후에 다시 통화하기로 했고, 고르바초프가 매우 어려

은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콜은 알게 되었다. 소련은 9월 10일 통화에서 요구한 160-180억 마르크를 150-160억 마르크로 낮추었다. 콜은 110-120억 마르크가 동원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120억 마르크 현금과 무이자 차관 30억 마르크를 합한 총 150억 마르크로 최종 합의가 되었다. 120억 마르크는 4년간 지불되고, 30억 마르크 차관은 5년간 지불되었다. 콜은 150억 마르크를 주고 소련으로부터 흡수통일을 산 것이었다. 콜과의 협상 결과 소련은 동독에 주둔하는 군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추가적 재정지원을 약속받은 것이었다. 독일의 통일문제와 소련의 경제문제는 한 배를 타고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소련은 독일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두 번에 걸쳐서 바꾸었다. 첫 번째는 베르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원칙적으로 반대했던 통일을, 현실적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연합에 기초한 독일의 중립화를 포기하고, 흡수통일과 나토 잔류를 허락하게 된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변화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 속에는 소련의 경제와 재정변화를 주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도 포함된다.

소련의 반대가 철회되면서 독일통일은 9월 12일 6자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되었다. 독일은 자주권을 회복하고, 소련군은 1994년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1990년 9월 20일 서독의 국회는 통일을 의결했다. 442명의 국회의원 중에 3명은 기권을 했고, 47명(녹색당과 몇 기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동독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국민회의를 개최하고, 동독국회를 해산했다.

### 3. 미국과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독일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통일이 유럽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두개의 독일이 한 개의 독일 보다 좋다”고 공식석상에서 스스로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Helmut Kohl, Meine Erinnerungen; Droemer, Muenchen 2014: 21) 그녀는 유럽국가 수반들이 모인 스트라스부르크 저녁 만찬에서 노골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독일을 두 번이나 물리쳤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서있다.” 독일이 유럽의 강자로 다시 군림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녀는 고르바초프와 1990년 9월 23일 만나서, 독일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소련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통일은 전후 국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국제관계에 변화를 주고, 영국과 유럽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미 독일통일 배는 출항을 했는데 뒤늦게 손을 흔드는 격이었다.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 역시 영국의 대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9월 1일 미테랑은 대처와 만나서 독일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잔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힘의 균형 때문에 독일통일은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저지 당 할 것으로 보았다. 동독의 공산당 대표 크렌즈 역시 소련이 독일이 나토 회원국으로 존재하는 통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네델란드 수상 역시 독일통일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나치를 경험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이웃국가들은 독일통일을 우려하고, 자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오직 스페인의 곤잘레스 수장과 아이랜드의 허기 수상만이 독일통일을 옹호하였다.

독일통일을 적극 옹호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부시이다. 그는 민족의 분단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독일은 전쟁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고, 서방의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이 미래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독일이 유럽의 군주로 군림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 밖에서 보는 미국의 관점과 유럽 안에서 보는 유럽 국가들의 관점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콜은 이러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부시를 좋아했고, 늘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통일에 필요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콜의 입장에서 부시는 하늘이 보내준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이 동독에 주둔한 군대를 바탕으로 독일통일을 막아 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소련이 직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유럽 국가들이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비용은 분담하지 않으면서, 소련군의 책임만 언급하는 것을 고르바초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은 독일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일치했지만, 그 비용을 분담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달랐던 것이다. 오직 소련만이 막강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홀로 통일반대 비용을 부담하는 형국이었다.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비용을 영국과 프랑스가 부담한다면 소련은 군대를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독일통일을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그러한 재정지원을 할 의지가 없었다.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고르바초프는 통일반대에 따른 비용부담보다는 통일찬성에 따른 수입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군사적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선택했다. 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방향 전환으로 인하여 독일통일을 저지할 힘을 상실했다.

### III. 독일의 상황

#### 1. 콜의 정치적 행보

콜은 1871년 독일통일을 처음으로 이룬 비스마르크를 인용하면서, 독일통일은 하나님의 도움(mit Gottes Hilfe)으로 이루었다고 고백한다. (Helmut Kohl, Meine Erinnerungen; Droemer, Muenchen 2014: 8) 비스마르크에 따르면 정치인은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인물이다. 정치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행보를 정하는 사람이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에게 3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손길을 느껴야 한다. 셋째는 그 손길을 잡고 그의 품안에 뛰어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담대함과 지혜가 요구된다. 정책은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가능성을 타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합당한 결과를 담고 있어야 한다.

콜은 비스마르크가 요구하는 3 가지 조건을 늘 의식하면서 독일통일을 이루어냈다고 고백한다. 독일통일은 하나님 은총의 결과이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과감히 그 품에 안기었다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그의 과감한 행보는 1987년 5월 말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동독 여행을 간 것으로도 나타난다. 그는 젊었을 때에도 개인 자격으로 동독을 자주 방문하였다. 1978년에는



너무 자주 방문한다고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당한 적도 있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희미한 사람에게는 동독을 한번 다녀올 것을 권했다. 동독을 다녀오면 독일민족이 한 민족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서독 수상이 된 후에, 개인 자격으로 주말에 동독을 방문했기 때문에 동독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는 동독주민들과 개인적 접촉을 시도했고, 동독주민들은 자신이 만나는 서독수상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를 정도로 놀라워했다. 남녀노소, 누구와도 만날 수 있었고, 학생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신학교를 방문해서 신학생들과 토론도 하고, 백화점도 가서 상품들도 구경을 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명을 부탁했다. 그리고 동독주민들은 마음에 있는 말들을 허물없이 쏟아냈다. “콜 수상님 당신의 정치를 계속하시오,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주세요요,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Helmut Kohl, Erinnerungen 1982-1990; Droemer, Muenchen 2005: 708) 그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토요일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저녁에는 오페라 구경도 갔다. 사람들은 오페라 무대 보다는 발코니에 앉은 콜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일요일 아침 공원 산책에서는 신혼부부가 다가와서 함께 사진을 찍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5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다. 그리고 다시금 “수상님, 당신의 통일정책을 계속하세요”, “담대하세요”,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Helmut Kohl, Erinnerungen 1982-1990: 711)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는 독일통일이 역사적 과제임을 피부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민족분단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정치가들은 가져야 하고, 자신은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자신의 통일의를 지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느낀 것은 그가 기민당 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1989년이다. 1989년 9월 브레멘에서 있던 기민당(CDU) 정당대회에서 콜은 당대표직에 출마하지만,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한둘씩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기민당의 패배 책임을 묻고, 그를 낙마시키려는 세력이 강하게 연합하였다. 자신의 지역구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한 콜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9월 10일 브레멘 전당대회로 떠나려는 날 헝가리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헝가리 정부가 동독 난민들에게 자유로운 여행 허가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요일 저녁 당 대표 선출을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던 기자들 앞에서 이 새로운 사실을 공표했다. 선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났다. 그동안 콜의 통일정책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헝가리에 있던 6천명의 동독난민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았고, 그 후 총 1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자유를 찾아 나섰다. 새로운 소식은 전당대회 분위기를 바꾸었다. 콜은 750명의 당원 중에서 571표를 얻고 19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콜은 독일통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게 된다. 헝가리의 소식이 없었다면, 그는 당 대표에 낙선하거나, 힘없는 당 대표로 존재하면서, 소신 있게 통일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점에 좋은 소식으로 반전의 기회를 주었다고 콜은 고백하고 있다. (Helmut Kohl, Erinnerungen 1982-1990: 711)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콜은 독일통일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추진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 때문에, 독일통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고, 소련은 자신들의 군대를 바탕으로 통일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6자 회담 등을 제시했지만, 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렸다. 대부분의 유럽 정치가들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콜의 지혜는 시대정신을 읽고, 실현시키려는 힘을 가졌다. 그는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 건설의 동반자임을 자처했다. 고르바초프는 더 좋은 미래 건설을 위한 친구로 콜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1989년 6월 고르바초프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에도 콜은 독일통일은 유럽이 연합하듯이, 자연적 섭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언제 가는 통일은 이루어지지만,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 콜은 고르바초프에게 자신이 독일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고르바초프가 동독 사태에 대한 걱정을 하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자주하면서, 그를 안심시켰다. 콜은 동독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 사태는 가라앉을 것이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나중에 동독 신문은 콜이 독일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추측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다. 그 만큼 콜은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콜로부터 통일을 원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르바초프는 나중에 콜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콜은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면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고르바초프로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콜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긍정적 인상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

1989년 11월 베르린 장벽이 붕괴된 후 나토 등 주변의 국가들은 바빠지기 시작했고, 국제회의가 자주 열렸다. 콜은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독일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였다. 앞으로의 상환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내외 모두가 궁금해 하고, 두려움으로 보고 있을 때에 콜은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가지 조항의 계획을 준비한다. 콜은 자신의 구상을 유럽연합에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콜 보다 먼저 유럽연합 대표 모임을 1989년 11월 18일 파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동시에 국경변화는 없다고 미리 선수를 치고 나왔다. 프랑스 대통령은 겉으로는 베르린 장벽 붕괴가 유럽 자유의 진보라고 평가하면서, 사적 만남에서는 충성 없는 새로운 “세계 전쟁”이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재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11월 18일 파리에서 콜은 미테랑과 4 가지 의제를 놓고 토론했지만, 통일 이야기는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그는 식사 시간에도 통일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는 현재의 유럽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테랑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영국 수상 대처가 콜에게 직접적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에, 콜은 피할 수 없어서 1970년도 나토 선언문에 독일통일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음을 밝혔다. 1989년 11월 22일 유럽 의회에서도 콜은 독일통일은 유럽연합의 확장 측면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르샤바, 프라하, 소피아가 유럽에 속해있듯이, 베르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이 유럽에 속했음을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동독이 통일된 독일과 통일된 유럽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콜은 이웃국가들이 독일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서 반 통일정서를 유럽국가들 사이에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통일반대 세력으로 집결할 경우 통일은 어려워 지는 것이다. 그는 내각 각료에게도 명령하여 서독정부가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행동을 요구했다. 1989년 11월 28일 발표한 10개 조항에서 콜은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서독 정부가 독일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독일통일은 유럽 연합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의 통일을 반대하는 유럽국가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소련, 프랑스, 영국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고, 분단을 주도했지만, 이들은 통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단합된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콜의 담대함과 지혜는 통일된 후에도 독일이 나토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타난다.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보면, 소련이 이를 받아 줄 가능성은 없었다. 당시의 미국과 소련간의 대립구도를 고려할 때에 통일된 독일은 중립국으로 남는 것이 합리적 타협점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콜은 나토잔류를 담대하게 밀고 나갔다. 서독의 초대 수상이었던 아데나우어는 독일의 중립화는 유럽에서 힘의 진공상태를 만들고, 결국에는 소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콜은 아데나우어의 정치철학을 계승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중요시했다. 1982년 나토의 핵미사일 배치 결정을 콜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원자폭탄이 나토를 통하여 독일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련과의 협상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핵이 없었다면 소련의 우위가 크고, 협상력은 오히려 불리해졌을 것이다. 미국과의 강한 연합 때문에, 동서간의 냉전을 위한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소련이 개방정책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강한 연합을 기초로 콜은 소련에 대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소련은 이를 현실로 인정한 것이었다. 독일이 나토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미국은 독일통일의 확실한 지지자로 행동했다.

독일통일은 언제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콜은 행동해 왔다. 독일도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두 개의 국가론이 대두하고, 분단된 독일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려는 시대정신이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이미 70년대 이후부터 독일 정치에서 통일은 더 이상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다. 통일이념은 포기된 상태였고, 국민의 대다수도 이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콜은 1982년 수상이 된 후에 독일통일의 기반을 닦아갔다. 우선 유럽통합을 추진하였다.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을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한 아데나우어의 정치철학을 계승한 그는 유럽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독일통일은 현재보다는 미래 문제 해결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유럽연합의 발전을 독일통일의 지름길로 이해한 콜은 유럽단일 통화를 추진했고, 동서간의 대립을 완화시켰다.

콜은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동독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갔다. 동독장벽에서의 자동차관총을 폐지시키고, 동독 주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 가족 상봉과 이주민을 가능하게 했다. 정치범을 석방하기 위하여 서독교회를 통하여 동독 정부에게 돈을 건네주었다<sup>2)</sup> 그는 동독 사

2)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게 정치범 한 사람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4만 마르크를 교회를 통하여 간접으로

람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힘썼다. 그는 서독이 동독을 버리지 않았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통일정책을 통하여 동독주민들에게 계속 던졌다. 그의 통일정책은 동독에 돈을 퍼주는 정책이라고 국내에서 비난도 받았지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콜에 따르면 독일통일은 총 한방 쓰지 않고 이루어낸 인류 진보의 역사이다. 하나님과 이웃국가들의 도움으로 독일은 40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독일통일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다. 중립국이나 국가연합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이 동독 사태진압에 나섰다면, 상황은 더욱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의 강한 통일 의지가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시키고, 흡수통일의 길을 열었다.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동독주민들을 움직였고, 이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민족공동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독일통일은 인류를 발전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영된 것이다. 통일은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다. 통일의 주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고, 비스마르크와 콜은 주장하고 있다. 독일통일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하여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더 나은 미래 건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다.

## 2. 동독의 변화

소련은 동서독 간의 정상회담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여러 번 방해하였다. 그러나 1987년 동독 수상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하고, 1988년에는 서독수상 콜이 개인자격으로 동독을 방문하면서 동서독간의 물밑 작업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소련의 비밀경찰은 서독에서 동독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동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르바초프한테 보고를 하였다. (Valentin Falin: Konflikte im Kreml, 138)

1989년 5월 7일 동독의 기초단체선거에서 처음으로 동독의 기민당(CDU)이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폭로하면서 동독사태는 시작되었다. 부정선거 시위의 주동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면서 시위는 잠잠해 지는 듯했지만,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많은 동독주민들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장하는 개혁정책을 지지하면서, 동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을 상대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1989년 가을에 사회적 변화가 일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동독 공산당 지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회주의를 수정하려는 고르바초프를 비판하고, 동독에서 사회주의는 더 완숙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호네커는 주장했다. 호네커를 비롯한 대부분 동독 공산당원들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나약한 발상으로 거부하고, 동

---

지불했고, 동독정부는 1989년까지 3만 4천명의 정치범을 석방했다.

독은 사회주의를 완성시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독의 개혁 필요성을 지지하는 80명의 개혁대표들은 1989년 9월 24일 신포럼(Neue Forum)을 발족시켰다. 동독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 하지 않았다. 9월 25일에 동독 라이프치히에서는 5천 명이 신포럼의 허가와 동독정치의 개혁을 위한 데모를 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지하고, 행동에 앞장 선 사람들은 작가, 예술가, 학자들로, 이들은 동독이 제 3의 길, 즉 인간적 사회주의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도입 보다는 사회주의를 개선하고,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교회에서는 매주 평화를 위한 월요기도모임이 7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10월 9일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 평화적 촛불시위를 주관하기로 했는데,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7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교회의 기도모임이 평화적 시위로 변하고, 성공함에 따라서, 전국으로 평화적 시위는 확산되어갔다. 18일에는 호네커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크렌츠가 그 뒤를 이어 공산당 정치국을 대표했다. 한 달 후인 11월 9일에는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다. 라이프치히에서 평화적 시위가 성공한지 한 달 만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독일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독과 동독간의 왕래가 자유롭게 되었다.

동독의 붕괴를 두려워한 동독과 소련의 강경파들은 소련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했고, 고르바초프한테 시위대가 베르린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 군대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고르바초프는 콜에게 전화를 걸어 베르린 상태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했다. 콜은 단순한 시위이고, 가족 파티 분위기라고 전하고, 콜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콜을 신뢰한 고르바초프는 군대에게 막사에 있으라는 말을 전함으로 인하여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주었다.

베르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통일이 될 것인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통일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흡수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과 같은 형태의 국가연합이다. 동독과 소련과 유럽의 정치가들은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국가연합 형태를 지지하였다. 동독 수상 모르드오는 협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제안하였다. 동독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두 개의 국가 형태를 갖춘 통일방안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개선된 사회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방안은 서독의 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이미 서독의 시민당(SPD)은 동독의 시민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두 개의 독일을 인정하는 방안이 현실적 방안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당시 서독 쪽의 베르린 시장으로 있던 발터 뎀퍼(Walter Momper)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 3의 길을 미래 모델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서독과 동독의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은 동독이 새로운 제 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sup>3)</sup> 동독을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3)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 휘러 목사는 10월 9일의 평화적 시위를 주도해서, 독일통일의 주역이라고 까지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역시 흡수통일 보다는 더 나은 동독을 원했다. 많은 동독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콜은 11월 23일 자신의 스탭들을 불러서 동독 수상 모드로우가 계약 국가, 즉 국가연합 형태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차단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콜은 겉으로는 유럽연합의 한 부분으로 동독을 지해달라고 유럽 연합에서 연설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연합의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는 흡수통일을 원했다.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두 개의 국가가 아닌 한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동독은 자신들의 주권이 보장되기를 원했고, 유럽 연합과 소련은 동독의 제안을 받아드리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서독의 사회당 일부 세력과 녹색당은 독일이 중립국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다. 각자가 입맛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혼란한 상태에서 콜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통일된 독일 국가를 세울 방안을 찾아야 했다.

콜은 8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이 문제 해결을 고민하였다. 결과는 통일독일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먼저 동독이 주장하는 계약공동체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에 국가연합으로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단일국가로 만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동독과 유럽 국가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콜은 “독일통일로 가는 10 조항”을 발표하였다.<sup>4)</sup> 콜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는 10개 조항을 대사관을 통하여 각 나라에게 알렸다<sup>5)</sup>. 다만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는 미리 개인적으로 전달을 했고, 부시에게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공적인가를 칭찬해줄 것을 부탁했다. 서독 국회에 10개 조항을 알리면서, 역사적 도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기사당과 기민당은 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녹색당은 제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

를 포기하기보다는 개선하려고 했다.

4) 콜이 발표한 10개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독 사람들에게 서독과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2. 동독과 서독의 협력을 위한 도로, 철도, 전화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3. 동독의 자유시장 체제의 도입과 자유선거를 촉구하고, 경제적으로 도와 줄 것을 약속함.
  4. 동독의 계약공동체 안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더욱 강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들을 가동시켜서, 경제, 교통, 환경, 과학 기술, 보건, 문화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5. 동독의 자유선거를 강조하면서, 자유선거를 통하여 동독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는 통일로 갈 것을 확신했다.
  6. 동독과의 관계는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유럽연합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자유, 민주, 인권, 자주권 등의 가치관을 언급했다.
  8. 유럽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모임(KSZE)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련도 독일통일 문제를 안보와 군사력 긴축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9. 유럽에서의 군사력 감축과 무기감시와 화학 무기 등에 대한 금지와 핵무기의 최소화를 주장했고, 동독도 이를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10. 서독정부는 유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함. 독일 국민은 통일을 위한 자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했다. 일반 원칙을 주장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았다. 콜 자신도 적어도 3-4년은 걸려야 통일이 될 것으로 보았다.
- 5) 고르바초프는 10개 조항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는 편지를 콜에게 보냈다. 그는 국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르바초프는 동독수상 모드로우에게도 독일통일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동서독 간의 정치적 교류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는 콜이 국내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쓴다고 보았다.

졌다. 그리고 자유당(FDP)의 경우 국회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였고, 전당대회는 10개 조항을 거부하였다. 서독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았다.

11월 20일에는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25만 명이 월요기도모임 후에 거리행진을 하였다. 그들은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민” 내지는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열원이 가득함을 알 수 있었다.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요구로 진행되고 있었다. 동독의 드레스덴 주민들은 “독일 수상 콜”이라는 플라카트로 그를 영접했다.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서 동독 주민들은 2개 국가의 방안을 거부하고,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국경시대 사람들 역시 흡수통일을 지지하였다. 서독 수상 콜은 흡수통일이 동독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눈앞에 있음을 직감했다.

12월 1일 동독국민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공산당의 지도권을 삭제하였다. 공산당 지도부는 더 이상 정부의 대표가 아니고,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공산당 지도자인 크렌즈 보다는 행정부 대표인 모드로우가 실권자로 등극한 것이다. 모르드우는 콜에게 동독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3월과 5월을 기점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서독에게 150억 마르크의 지원을 요구했다. 콜은 이를 거부하고 동독주민의 자유여행을 위한 20억 차관을 제안했다. 그리고 비자면제, 강제 화폐교환 폐지, 정치범의 크리스마스 전 석방들을 요구했다. 12월 22일 베르린 시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여는 것도 합의했다. 12월 24일부터는 서독주민들도 비자와 화폐의 강제교환 없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1월 15일에는 시위대가 동 베르린의 비밀경찰 본부를 습격했다. 그동안 공산당의 독재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비밀경찰이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독의 공산주의 정부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 즉, 공산당과 비밀경찰이 무너진 것이다. 동독정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동독의 경제생산성은 하락하고, 국가재정은 적자를 내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동독정부는 통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된다. 동독은 5월 6일 계획 했던 자유선거를 3월 18일로 앞당긴다. 통일 시계는 더욱 빨라졌다.

동독 붕괴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2월 1일에는 동독과 서독 정치가들이 3월에 있을 자유선거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갖는다. 거기에서 벌써 동독의 수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큰 인쟁이 벌어진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면서 비난하게 된다. 콜의 중재로 자유선거를 위한 연합이 어렵게 형성된다. 선거공약들이 만들어지고, 동독의 정당들은 서독으로 편입되는 흡수통일 방안을 채택한다. 서독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동독에도 적용되고, 화폐는 서독 마르크를 통용하기로 한다. 동독의 저축은 1:1로 보장된다. 많은 서독의 사람들은 동독 선거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특별 휴가를 내기도 했다. 3월 자유선거에서 동독의 공산당은 패배하고, 기민당(CDU)이 승리했다.

동독, 소련,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계약공동체 내지는 국가연합 형태로 통일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동독 주민들은 흡수통일을 선택했다. 동독의 기득권층은 주권을 보장받는 두 개의 독일을 원했지만, 주민들은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갈망했다. 동독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를 좀 더 나은 방식으

로 개선해서 유지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이념보다는 빵을 선택했다. 동독주민들은 “우리도 서독의 경제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흡수통일을 선택했다.

#### IV. 돈의 역할

##### 1. 소련의 경제상황

소련의 경제연구소는 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소련 경제를 바탕으로 비관적 예측을 내놓았다. 2010년에 소련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55%에서 4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고, 노동의 생산성 역시 미국에 비교하여 33%에서 25%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2010년에 미국의 65%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고, 농업분야에서도 15%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근본원인으로 소련의 과학적, 기술적 수준이 미국에 비하여 10-15년 정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새롭게 전개되는 정보, 신소재, 바이오테크 등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Valentin Falin: Konflikte im Kreml, 277 f)

소련은 원자재 생산에서 미국에 뒤지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율은 과학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뒤 떨어지고 있었다. 1986년과 1987년 실질 경제성장율은 1-1.5%로 목표인 4.5-5%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소련은 아직도 경제성장의 목표를 주거, 식량 문제 해결과 같은 기초적 욕구충족에 맞추고, 다양한 욕구 분출과 경제의 역동성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다. 소련 경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소련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는 서로 단절된 상태로 존재했다. 시장경제와 같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기 보다는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의 선호도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련에서 소비자의 소비수준은 미국 소비자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소비구조에서도 의복, 구두, 식량과 같은 기초생활품의 지출비중은 총 지출의 70%로 미국의 2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소련의 소비자는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의 욕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소비재가 총생산의 65%를 차지하는데, 소련의 경우 50% 정도 수준이었다. 반대로 총생산에서 생산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산재 비중은 소련의 경우 24%이지만, 미국은 14%이었다. 이러한 과도한 생산구조는 그 자체로도 문제를 발생시켰다. 너무 많이 생산된 석탄과 철강자원은 이들을 처분하는데 추가적 부담을 요구했다. 서구사회는 석탄과 철강의 생산을 줄이면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질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소련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소련은 변화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역동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외부와 고립된 소련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열기와 노력과 창구가 없었다.

서비스 산업도 낙후되어 있었다. 총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60% 수준의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되었다.

소련 경제의 낙후성은 해외 교역에서도 문제를 발생시켰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의 주요



상품인 원유 수출액은 1984년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했다. 천연가스의 수출액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반면 수입액은 1983년 이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산업발전과 함께 기계류의 수입액은 증가했고, 곡물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소련은 생활필수품의 수입을 위해서 외환이 필요한 나라이었다. 무역이 흑자이면 곡물 수입이 원활하고, 생활필수품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이 부진하고, 외환이 부족하면 곡물 수입이 어렵고, 생활필수품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표1>

(단위; 백만 루블)

년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수출						
원유	28,216	30,895	28,188	22,464	22,826	20,708
천연가스	6,302	7,463	7,695	7,358	6,381	5,197
수입						
기계류	22,747	23,944	25,683	25,455	25,155	26,584
소비재와 식품	11,079	12,411	13,205	12,926	11,964	11,738
곡물과 생필품	14,724	17,776	18,045	14,961	13,516	14,101

< 소련의 수출과 수입 >

자료: Vneshniaia Torgovlia, Slatishchskii Sbornik, annual editions, 1980 through 1988.

자료: Goldman, Marshall, GORBACHEV THE ECONOMIST. in: Foreign Affairs, 1990 Vol.69:

36

소련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하락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표1)을 바탕으로 보면, 1984년 원유 308억 9천5백만 루블과 천연가스 74억 6천3백만 루블을 합한 수출액은 383억 5천8백만 루블이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하여 1988년도 원유수입은 207억 8백만, 천연가스 수입은 51억 9천 7백만 루블로 감소하여, 수출액은 259억 5백만 루블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환수입이 176억 5천만 루블 감소했다.

수출상품의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을 요구하는 장기적 과제이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

려운 문제이었다. 무역수지의 적자는 외환시장에서 루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무역수지의 악화는 해외부채를 증가시켰다. 1988년 총 해외부채 규모가 250억 루블이고, 인도, 유고슬라비아, 중국, 이집트 등과의 채무를 차감한 순 해외부채 규모는 20억 루블이었다. 부채 중에 단기 부채 비중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1988년부터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련의 총 해외부채 규모는 총 수출액보다 50% 이상 높았다. 이로 인하여 1988년도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의 60%를 부채상환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돈의 90%는 1분기에 지불되어야 했다. 1988년 1분기에 순 해외부채가 25억 루블 추가되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1988년 말에 80억 루블로 계획되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초과했다. 무역에서 번 돈만으로 더 이상 해외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야 하는 상태에 놓였다. 또한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생활필수품들을 위한 외환도 부족해졌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1989년 6월 서독을 방문하고, 겨울이 오면 예상되는 생활필수품의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콜은 원조를 약속하고, 1990년 2월 52,000톤의 소고기 통조림, 5만 톤 돼지고기, 2만 톤 버터, 1만5천 톤 밀크버터, 5천 톤 치즈를 소련으로 보냈다. 그 외에 구두, 외투 등의 생활필수품도 보내졌다. 소련경제는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소련은 부채상환을 위하여 새로운 부채를 끌어들이야 하는 상태에 놓였다.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소련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모든 상황은 비밀에 부쳐졌지만, 심각한 상태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을 해외로 매각하여 구조적 문제도 해결하고, 외화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소련의 경우 해외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아직 냉전의 시대, 대립의 시대인 고로 서방기업의 소련 진출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소련 경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부도를 막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장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을 외쳤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경제의 도입과 의식의 변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가 경제적 낙후성을 보이는 원인은 이념 논쟁에 집중하고,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외면한 결과이었다. 과학적, 기술적 발전이 속도를 내고,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를 위한 동기가 부족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과학과 기술 발전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소련의 국영기업들은 모험과 투자를 하지 않아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었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와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은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장기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외로 향한 문을 열고, 생

기를 소련 사회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자유와 경쟁과 소유 등 새로운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완성이 아니라 자본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전환은 특수층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해외에 축적해 갔고,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사기업 풍토를 조성해 갔다. 천개 이상의 협동조합은행들이 등록되면서, 금융시장도 혼란 속에 빠지고, 중앙정부는 경제를 더 이상 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경제과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소련은 단기적 과제 즉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해외 차관이 필요했다. 여기에 돈을 들고 나타난 사람은 서독의 콜 수상이다. 1990년 소련 정부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5월 14일 고르바초프는 긴급하게 콜에게 재정지원의 편지를 보냈고, 5월 22일 콜은 독일 민간은행이 대출해주는 50억 마르크에 대한 독일정부의 보증을 약속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필요로 하는 급한 돈을 조달해준 콜에게 즉각 감사 편지를 썼다. 1990년도 소련군의 동독 주둔비용 12억 5천 마르크도 서독이 부담했다. 소련군이 동독 은행에 가지고 있는 저축금도 서독이 부담했다. 서독의 도움으로 소련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콜은 고르바초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도 적극적으로 했다. 그는 부시에게 고르바초프가 200-250억 마르크의 차관을 요구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러나 부시는 고르바초프가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만약 미국의회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제안이 온다면 리투아니아 사태로 인하여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부시는 말했다.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지지한 미국과 이를 반대한 소련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소련은 미국으로 부터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소련의 재정적 갈급함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유럽의 경제 강국 오직 독일뿐이었다. 콜은 돈을 가지고 고르바초프의 아픈 부위를 감싼 것이다. 결국 1990년 6월 모스크바 만남에서 고르바초프는 여름세일 가격으로 동독을 서독에 넘겨주게 된다. 고르바초프는 총 150억 마르크를 서독으로부터 약속받고, 국가재정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다. 고르바초프는 처음에 독일통일에 대하여 많은 조건들을 내세웠지만<sup>6)</sup>,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하여 콜이 원하는 흡수통일과 나토 잔류를 인정한 것이었다.

소련이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고르바초프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서독의 재정지원이 필요했고, 콜은 돈을 가지고 흡수통일을 살 수 있었다.

## 2. 동독의 경제과탄

1971년 동독 수상 호네커는 집권하면서, 동독주민들에게 복지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안정된 주거와 생활필수품의 공급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주거와 생활필수품의 가격들을 장기적으로 고정시켰다.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1989년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생산비용의 1/30 수준이 되었다.

---

6) 1990년 2월 고르바초프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소련은 통일독일을 중립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구체적 조항으로는 a) 동서독이 연합국 형태로 나토와 바르샤바 파크에 동시에 가입한다. b) 4대 승전국이 군대가 아닌 형식적 기구로 존재한다. c) 4대 승전국이 동서독간의 지리적 구분을 두지 않고, 혼합 형태로 존재한다. (Valentin Falin: Konflikte im Kreml 159)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판매가격으로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했다. 새로 선출된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호네커는 이를 반대했다. 보조금 정책을 통하여 유지되는 가격안정은 사회주의가 달성한 업적이고,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독 주민들은 고기, 빵, 버터 등 생활필수품을 위한 가격을 50년 전이나 1989년이나 동일하게 지불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971년 262억 마르크를 보조금으로 지출했고, 1988년에는 1105억 마르크를 지출해야 했다. 정부재정 부담이 4배로 증가한 것이었다. 1988년 국가재정의 약 7% 수준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 세계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독에서 생활필수품 가격이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을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동독 사람들은 57%가 자신의 능력에 비례한 소득을 받고, 43%는 능력과 무관한 일정액의 소득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능력원칙은 동독 경제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19년 동안 유지해온 복지정책은 정부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총 부채규모는 1970년 120억 마르크에서 1988년에는 1230억 마르크로 증가했다. 그리고 1989년에는 국가재정수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억 마르크를 추가로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동독의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투자율은 1970년 16.1%에서 1988년 9.9%로 감소했다. 특히 생산재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1970년부터 1988년 까지 총 122% 증가했고, 주거, 생활환경과 같은 비생산적분야에 대한 투자는 같은 기간 200%가 증가하였다. 생산재 부문에 대한 투자율 감소는 국민소득의 증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독 경제의 약화는 환율에도 반영되면서, 국제수지도 악화되었다.

1971년부터 1980년 까지 동독은 서방국가와의 교역에서 210억 마르크의 적자를 보였다. 동독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국가에 속한다. 동독은 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소련은 동독에게 원유를 “형제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1980년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동독에게 “형제가격”이 아닌 국제시장가격을 요구했고, 더 나아가 1982년에는 공급량을 2백만 톤으로 한정하게 된다. 동독은 이로 인하여 오일을 석탄으로 대체해서 난방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난방을 기름이 아닌 석탄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그것으로 무역수지의 적자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1986년부터 1990년 까지 경제개발 5년 계획의 목표액에 수출은 140억 마르크가 미달했고, 수입은 150억 마르크가 능가했다. 이로 인하여 무역수지는 231억 마르크 흑자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60억 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채무상환을 어렵게 하고, 이자지급을 위해서 새로운 채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동독은 채무상환을 위하여 더 많은 채무를 져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대체로 수출에서 부채를 상환하려면 부채상환규모가 총 수출액의 25%를 능가해서는 안 되는데, 동독의 경우 150%에 달한 것이다. 1970년 20억 마르크의 해외채무가 1989년 490억 마르크로 증가했다. 1988년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는 10억 마르크인데, 부채상환을 위한 부담은 130억 마르크였다. 동독은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해가고,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동독은 1981년에도

국가부도 상태에 몰렸는데, 그 때에도 서독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동독의 공산당 대표인 크렌즈는 1989년 11월 1일 모스크바의 고르바초프를 방문한다. 동독의 외화 수입은 59억 달러, 지출은 180억 달러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존해줄 것을 소련에 요구했다. 고르바초프는 놀라면서, 그 적자를 보존해 줄 것을 구도로 약속한다. 동독은 소련이 낳은 아이와 같고, 아이를 보호할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소련은 동독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귀국길에서 크렌즈는 소련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련의 도움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게 된 동독 지도자들은 230억 마르크의 추가 재정지원을 서독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독과의 교류확대를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국경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동독과 서독은 서로 원만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약 1000억 마르크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2004년 올림픽을 동서독이 공동 주체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SED-Polibuerovorlage: Analyse der Oekonomischen Lage der DDR mit Schlussfolgerungen. 30. Oktober 1989: 12(Schuerer-Papier))

동독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독과의 교류 내지는 합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기적 외화 벌이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 국경 통과세와 정치범을 석방하면서 서독으로부터 총 350억 마르크를 벌었다.

1990년 1월 11일 동독 수상 모드로우는 국가재정이 50-60 억 마르크 적자가 났고,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했음을 알았다. 모드로우는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월 13일 모드로우는 17명의 장관을 대동하고 서독 본을 방문한다. 그는 콜에게 두 번째로 150억 마르크의 원조를 요청한다. 그러나 콜은 이 돈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같다고 보고, 거절했다. 그 대신 콜은 통화연합의 설치를 주장한다. 통화연합은 처음에는 동독화폐를 서독화폐와 교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부도의 위기를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독화폐는 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서독화폐만이 유일한 통화로 인정하는 길을 가는 것이었다. 결국 동독 사람들에게 통화연합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2월 13일 서독을 방문한 동독지도자들은 동독의 살 길은 오직 서독에 흡수 통합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동독은 흡수통일을 오히려 서두르는 위치로 변했다. 5월 계획했던 지방선거를 3월로 앞당긴다. 그리고 5월 15일 서독 정당들은 1991년 1월 31일 전에 총선을 합의했지만, 동독은 12월 2일까지 지탱하기 어렵다고 고백하였다. 동독정부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기 전인 10월 14일 이전에 서독으로 편입되기를 원했다. 8월 22일과 23일 밤에 동독의 국민회의는 10월 3일 자로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고, 서독 헌법이 동독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의결하였다. 서독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망설이고 있는데, 돈이 없는 동독은 가능한 빨리 서독의 품에 안기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 정부는 통일합의서에 서명을 한다.

부채를 상환 할 돈이 없는 동독은 국가부도 위기를 흡수통일로 해결했다. 동독정부의 취약한 재정상태가 서독의 흡수통합 방안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동독이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지 않았다면, 동독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두 개의 독일을 주장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시

킨 제 3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실제로 제 3의 길은 서독의 많은 지식인들로 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동독은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었다.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15,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2016: 44) 이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돈을 통하여 흡수통일의 길을 택하게 했다.

## V. 종합

국제적 상황 속에서 독일통일은 국가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게 보였다. 유럽 국가들과 동독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소련은 통일독일이 중립국이나 국가연합으로 존재할 것을 주문했다. 동독의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도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두 개의 통일을 원했다. 서독 수상 콜 역시 “독일통일로 가는 10 조항”을 발표하면서 단계적 통일방안의 형태로 국가연합이 용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흡수통일을 관철시켰다. 흡수통일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여 나타난 결과이고, 보여 지는 요인들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와 콜 수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실현하는 정치가가 진정한 지도자이고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련과 동독에 나타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다.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소련은 서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필요로 했다. 동독 역시 서독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정적 압박은 동독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서독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자유와 개방을 갈망하는 동독주민들의 마음이다. 동독 주민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숨쉬는 창조주의 생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용기 있게 분출했다. 라이프치히 교회의 기도모임에서부터 시작한 변화의 욕구는 그 어떤 이념보다도 강했다. 동독의 기독교인들은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하루 빨리 통일을 원했다. 주민들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어 했다.

셋째는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콜은 흡수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외교력과 협상능력을 소유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진행해 갔다. 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쌓은 두터운 신뢰관계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틈새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독일통일은 국가연합이 아닌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주도해 갔다. 고르바초프와의 협상을 통하여 독일국민의 주권과 자결권을 보장받고, 이 원칙에 기초해서 흡수통일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콜은 독일 통일을 정치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사명으로 인식했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기초로 한국 통일을 생각해보는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된다. 첫째,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한국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얻어내야 한다. 미국과 소련의 지지 없이 독일통일은 불가능했듯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지지 없이 한

국통일 역시 불가능하다. 독일분단은 역사적 대가를 지불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 통일은 주변국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과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통일에 필요한 기초를 확실하게 구축해 가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목표의식과 비전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화주의 사상과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은 국가 간의 평화적 공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동아시아 국가 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규범이 필요하다. 기독교로 무장된 한국은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단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분단된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통일된 한국만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낼 수 있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책임지는 목표의식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통일은 주변국가의 선물이 아니라, 오직 협상으로만 이루어낼 수 있다.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일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은 강한 경제력과 나토가 뒷받침 해주는 군사력이었다. 한국도 중국과 일본에 밀리지 않는 경제력과 군사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우월한 경제력은 필수 조건이다. 만약 중국이 한국 보다 더 잘 살게 된다면, 북한은 남한보다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한이 통일을 주도하려면, 그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은 쟁취되는 것으로 우리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요구한다.

넷째,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의 정상 간의 교류를 비롯한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독일도 통일되기 2년 전에 동독 수상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하고, 그 다음해에 콜이 동독을 방문한 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급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서독 수상 콜에 따르면 책으로 읽어서 얻는 민족 동질성에 대한 감각과 직접 동독이나 북한을 방문해서 피부로 느끼는 민족 동질성에 대한 감각은 그 차원이 다르다. 남북한 간의 교류가 전제되지 않는 통일은 실현되기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통일을 위한 강한 의지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독주민들의 강한 통일 의지가 흡수통일을 가능하게 했다. 서독의 경제력은 당시 동독의 4배 이었는데,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경제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통일을 선택했다.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20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역시 남한의 풍요를 경험하고 싶을 것이다. 남한은 북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통일외지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은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통일을 축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정치적 제도적 준비들도 필요하다. 독일은 연방주의 국가이지만, 한국은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이 가져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재건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이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통일부(2016), “독일통일총서 15”, 『화폐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44.
2. 황의서(2009), 『독일통일이야기』 야스미디어, 서울, 2009.
3. Helmut Kohl(2005), 『Erinnerungen 1982-1990』, Droemer, Muenchen.  
Helmut Kohl(2014), 『Meine Erinnerungen』, Droemer, Muenchen..
4. Goldman, Marshall(1990), *GORBACHEV THE ECONOMIST*. in: Foreign Affairs, April, Vol. 69: 28-44.
5. Egon Krenz, 『Herbst '89』. edition ost. Berlin. 2014.
6. Anders Aslund(2007), *Russia's Capitalist revolution*, 안테쉬 오슬룬드, 지음 이용현, 윤영미 역 『러시아의 자본주의 혁명』, 전략과 문화, 서울. 2010.
7. *SED-Polibuerovorlage: Analyse der Oekonomischen Lage der DDR mit Schlussfolgerungen*. 30. Oktober 1989; (Schuerer-Papier)
8. Helmut Ettinger(Ed.)(2015), *Valentin Falin: Konflikte im Kreml, Der Untergang der Sowietunion*